

# 美 해병부대에서 평화기원법회

### 관음종 주최, 미국인들 영산대재 의식에 찬사

미국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오션사이드 비치 야외 음악당에서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주최로 3월 9일 '세계평화기원대법회'가 열렸다. 미국 군부대에서는 처음 열린 법회라 미 해병대사령관 콜로넬 존 켈먼과 훈련소장 J. M. 팩스톤, LA와 샌디에이고의 미주 한인 불자 등 5백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음악당 무대 중앙에 대형 괘불이 설치되고 좌우에 대형 번 10개, 무대 좌우로 작은 번 40여개가 설치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천도 법회는 관음종 인봉 스님 등 10여 스님들이 바라춤과 나비춤을 선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동국대 최윤희 교수의 관음무, UCLA 김동석 교수가 이끄는 국악단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졌다.

한국불교의 영산대재 의식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객석에서 "원더풀(Wonderful)" "뷰티풀(Beautiful)"을 연발하며 눈과 귀를 무대로 고정시켰다. 법회가 끝나자 찰스 버긴 이사장은 "한국 스님들의 엄숙하고 숭고한 이번 법회 의식을 통해 전방 병들이 전장에는 세상서 편히 쉴 수 있게 될



3월 9일 미국 샌디에이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서 최윤희 관음종 신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것"이라고 기뻐했다. 행사를 주관한 홍파 스님은 "내년 4월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원으로 정식 사업 계획에 상정해 9.11 테러가 일어난 뉴욕의 제로 그라운드에서 대규모 천도

재를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파 스님은 행사가 끝난 뒤 찰스 버긴 이사장에게 한국전 참전용사의 유가족들에게 써달라며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ews.com

## 선암사에 백암 스님 비 건립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공동위원장 총무원장 운산·선암사 주지 금용)가 3월 21일 선암사 무설전에서 운영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암사 부도전에 前종정 백암 스님 비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청련암 사지(寺址)에 암자를 세우기로 했다.

또 前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을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전통사상자재체험관 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태고총림 선암사 활성화를 위해 염불원을 개설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염불원장에는 설운 스님(경기북부총무원장)을 운영위에서 추천해 총무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

또 전통강원은 강원도의 정유와 직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강원 운영을 지역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 진각종 중단발전 기부워크숍

"중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수행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진각종은 포교, 문화, 교육 등 중단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3월 17~18일 양일간 경기도 포천 한화문화도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주 5일제 정착과 불교계의 환경 변화에 맞춰 중단 교역자들과 총무원 및 산하단체 기관의 적극적인 대

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재정 확충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가칭)포교연구실 개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 형성, 교육과 수행을 통한 경쟁력 있는 스승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김주일 기자

## 미륵종 경남중부교구 현판식

한국불교 미륵종은 3월 19일 부산시 북산동 구민정사(주지 혜민)에서 미륵종경남중부교구(위원장 혜민·사진)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엔 원로위원장 연봉 스님, 총무원장 송정 스님, 종회의장 지은 스님 및 전국 각 교구위원장과 경남중부교구 소속 스님 등이 참석하여 교구의 발전을 축하했다. 총무원장 송정 스님은 인사말에서 "경남중부교구는 타 교구에 비해 많은 중도 스님들이 주축하는 지역인 만큼 교구 발전과 화합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영민 경남 서부지사장

## 삼론종 만능불사범회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관)은 3월 19일 충북 제천 월악불교문화원에서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국운융창과 경제회복기원 만능불사범회'를 봉행했다.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종정 석봉, 부종정 혜공, 총무원장 혜관 스님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석봉 스님은 "보살은 부처님께 등공양을 해 천인을 얻었다"며 "등공양과 방생을 통해 국운융창을 발원하자"고 법문했다.

김주일 기자

## 불입종 원로의원 11명 추대

대한불교불입종(총무원장 경암)은 3월 18일 제천 총무원 직할 송화사에서 본말사 주지회의를 열고 원로회의 의원 스님 11명을 새롭게 추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조 종정 스님은 "중단의 위계질서는 승가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원로 스님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에 진력하는 풍토를 이뤄 나가기 위해 원로 의원 스님을 새롭게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대된 원로 의원은 우성혜경 혜관 묘성 정관 면철 성해 원상 법철 동암 인천 스님 등이다.

김주일 기자



# "찬불가 법회 활기 넘쳐요"

### interview 찬불가 노래방기기 군법당에 기증한 부불 스님



"법당에 엠프가 고장나 일요일법회 때마다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회를 볼때 반주용으로 법회의식곡을 틀었는데 장병들이 너무 좋아해 법회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민)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 3월 19일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제3관악교 호국청수사에 기증한 천안 천불사 주지 부불 스님(사진)은 엠프, 마이크, 노래방 반주기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군법당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말한다. 많은 군법당에 피아노가 있지만 반주 할 사람이 없고 그나마 있다고 해도 관리가 안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군법당에 피아노가 있지만 활용을 못해 법회 때마다 반주 없이 의식곡을 불렀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청수사의 엠프시설이 고장나 수리하려고 했는데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니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부불 스님은 또 찬불가 뿐만 아니라 일반 노래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병들의 군생활에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회 때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활용해 찬불가 법회 또는 가요 법회 등 법회를 특화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법회시간 전에 기다리는 동안 찬불가 노래방기기를 활용해 노래 부를 수 있게 한다면 찬불가 노래를 주제로 법회를 진행해도 장병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

니다. 정훈 교육을 법당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한다면 장병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수사 지도법사로 매월 한차례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부불 스님은 이번 찬불가 노래방 기기 기증에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각원사 배원 스님과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총정지부 회원들이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포교사단 대전총정지부 회원들은 그동안 부불 스님을 도와 청수사 법회를 주관해 왔다.

"찬불가 노래방기기가 군법당에 많이 보급돼 군장병들이 활기찬 군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불가 대중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해 군법당 뿐만 아니라 일반 사찰에도 많이 알릴 계획입니다."

부불 스님은 전국전문직자자원봉사자협의회 수석부회장, 심장병어린이들기삼운회 자문위원, 충남청소년종합상담센터 운영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군·교도 소망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고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발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 군법당 위문 : 소외된 군법당을 위문.
- ▶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당에 후원품 전달.
-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29826 (국민은행, 예금주 조계종특별교구)

##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도 허길랑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 '훈련소에서 온 편지' 3000권 논산훈련소 법당에 배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민)와 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기증된 불서 <훈련소에서 온 편지>(저자 한경선·박경준, 조계종출판사 간) 3천권이 육군 논산훈련소에 배부됐다. 육군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지난 3월 19일 3500여명이 동참한 일요일법회에서 <훈련소에서 온 편지>를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부대별로 10권씩 배부토록 했으며 입소대대 법당에 500권을 비치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호국연무사 박동진 법사는 법문을 통해 "군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힘을 얻고 활기차게 군생활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배부 취지를 밝혔다.

김두식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 합니다)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팔각봉축접 등



공 단 등



팔각조림등(반아심경)



주름등(만월봉축 등)



공 단 황금 등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곡동 180-1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 등)